

내달 1일 코스닥시장 출범 10돌

■ 현황과 전망

시가총액 8조,6000억 → 61조7,000억 성장

코스닥시장이 오는 7월1일로 출범 10돌을 맞는다. 1987년 4월 주식 장외시장으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1일 경매매매방식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주식시장으로 탄생, 국내 벤처기업의 산실로서 경제 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와 '작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제고돼 시장 개설 후 현재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해 9조원, 유상증자를 통해 18조원 등 총 27조원 가량의 직접자금을 기업에 공급했다.

시장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6%(40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7.64%(61조6천억원)로 증가했다. 고용효과는 1999년 말 8만2천159명에서 지난해 말 18만9천595명으로 2.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후유증도 커= 코스닥시장은 그러나 횡령과 주가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테마주를 앞세운 '묻지마식' 투자가 성행하는 등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컸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도 큰 편이어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매매가 적합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장법인 927개...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역할 '톡톡' 부실기업 편법상장 등 건전성 위협, 신뢰회복 급선무

여전히 변동성도 큰 편이어서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매매가 적합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코스닥시장은 아직 일부 투기성 자금을 제외하면 기관과 외국인으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개미들의 시장'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부실기업들의 편법 위회 상장이나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도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2000년 3월에는

정보기술(IT) 거품이 붕괴되면서 첨단 기술주들이 일제히 추락, 2,834.40에서 2004년 8월4일 324.71까지 폭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허상들이 여실히 속내를 드러냈다.

남은 과제는= 코스닥시장은 거품 붕괴 후 수년째 거둬들이는 제도 정비와 신뢰회복 노력에 힘입어 벤처기업들을 위한 정상적인 자본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무엇보다 오랜 주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부실기업들이 퇴출당하고 새로운 유망기업들이 부상하면서 몰락기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최근 수년 만

에 찾아온 코스닥시장의 활황은 이러한 시장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1999~2000년의 '거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의 업체당 평균 매출과 순이익은 1999년 말 대비 125%, 172% 늘고 부채비율은 11%포인트 낮아지는 등 실적과 재무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병재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코스닥시장의 출범 목적인 원활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실 기업들의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체질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소식/

기아차, 연말까지 고객차량 정비서비스

기아자동차(주)가 정비 현장에서 고객만족 실현에 나선다.

기아는 자동차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고객 감사의 날'로 정하고 정비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매월 '고객 감사의 날'마다 직원들의 정문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20명에게 ▲무료 엔진오일 교환권 40매 ▲자동차 정밀점검 쿠폰 80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아는 고객들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등 편안하고 친절한 고객맞이에도 힘쓰고 있으며, 수월 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 고객들과 한마음으로 한국 축구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기간 동안 전 직원이 붉은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광기술원, 국가공인 교정기관으로

한국 광기술원이 국가공인 교정기관 자격을 얻어 비수도권 광관련 업체의 교정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광기술원은 원내 특성, 신뢰성 시험센터가 최근 국가공인 교정기관 자격을 얻어 광통신 계측기에 대한 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교정항목은 광원 및 검출기 분야와 광통신 분야, 광섬유 전력측정기, 광스펙트럼 분석기(OSA), 광감쇠기, 다중과장계 등 2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광통신부품 생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대부분이 포함됐다.

특히 센터는 광주에 있는데다 기존 기관의 처리기간(2~4주)보다 짧은 1주일 만에 교정을 처리할 수 있어 비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거리·시간비용을 아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CD TV, 佛 히트모델 '톱5' 석권

삼성전자는 최근 프랑스에서 LCD TV가 2주 연속 히트 모델 '톱5'를 석권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시장조사기관 GFK의 자료를 인용, 2월부터 프랑스에서 '보르도' LCD TV 돌풍에 힘입어 LCD TV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보르도' 32인치 LCD TV는 출시 6주만에 히트모델 1위에 오른 등 각종 판매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2002년 베르사유공전 디지털 로드쇼 행사를 개최한 이래 투브르박물관 한국어 설명서 지원, 기념박물관과 로망박물관 후원 등 명소·명품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명소·명품 마케팅으로 역사 및 문화에 기여하는 공익 이미지를 현지인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올해의 최우수 선사상'

한진해운은 미국의 라이더사와 레이오니어사로부터 각각 '올해의 최우수 선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들 회사로부터 고객 서비스, 영업 지원, 운송 정시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사는 매출 5조원 규모의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며 레이오니어사는 미국의 4대 메이저 펄프 생산업체로 매년 자사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 선사들을 평가해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프라임제약, 전주에 GMP 공장 기공

'인류 건강을 위한 기업' 한국프라임제약(사장 김대익)은 최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내에 최첨단 GMP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전주공장은 대지 2천평, 연건평 1천500평 규모로 오는 12월 완공돼 내용고형제, 주사제 등을 생산하는 생산동 및 연구동 건물로 구성된다.



대우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공자위 "국민적 관심사안 시간두고 결정" 인수 유력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 '당혹'

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의 결과,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오늘 오전에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위원회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표시한 데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가 시간을 갖고 심의해줄 것을 요청해 이같은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사는 "현재로서는 다음 매각소위 일정이 결정될 바 없다"며 "공자위원들

의 결정에 따라 추후 밝혀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이날 오전 매각소위에 이어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었다. 일부 의원이 늦게 도착해 오후 2시30분께 회의가 시작됐지만 의견차이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께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5시까지 논란이 봉합되지 않아 결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입찰 참여업체나 대우건설 모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썬낸 것으로 알려진 인수가 격 6조6천억원이라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

은 편이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인수가 유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정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날 대우건설의 새 주인을 발표하기로 했던 공자위가 돌연 선정을 무기한 연기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자위가 선정 발표를 연기한 것이 다음 발표일을 기약하지도 않고 무기한 연기한 것이어서 대우건설 인수가 유력시됐던 금호아시아나로선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은 공자위의 조치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불공정 매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현대기아차 정몽구회장 장기간 부재 여파 투자협정 지연 등 국내외 대형사업 차질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경영공백이 발생하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이 역점 추진해온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가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일관체철소는 현대제철은 현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관련산업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일관체철소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회장의 부재로 제철소 건설·가동에

필수인 철광석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게 현대차그룹 설명이다. 정 회장이 그동안 연료공급과 관련한 사안을 직접 챙겨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내달중 중남미를 방문, 철광석 공급업체와 철광석 장기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경영공백이 계속될 경우 공급선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해외공장=현재 현

대차는 10억유로를 투자해 200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체코 공장 건설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기아차의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체코 공장의 경우 지난달 18일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투자협정계약을 체결했으나, 정 회장의 부재로 주민이주 및 환경보전 대책 수립, 주정부 인허가 신청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체코 정부 및 주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도 지난 3월 16일 투자계약을 맺고 4월26일 착공될 예정이었다. 정 회장의 구속수감으로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연철뉴스



'월드컵 푸드대전'

20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월드컵 푸드대전'에서 모델들이 월드컵 참가국들의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행사는 각국의 대표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판매하며 월드컵이 끝나는 7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연철뉴스

한국조선소 수주잔량 2개월 연속

현대·삼성중 등 세계 1~7위 석권

한국이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2개월 연속 1위부터 7위까지 석권했다.

20일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라슨(Clarkson)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각국 조선소 수주 잔량은 현대중공업이 1천116만CGT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고 삼성중공업(828만CGT)과 대우조선해양(750만CGT)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대우조선

을 누르며 이어 이번달에도 수주 잔량에

서 78만CGT 차이로 앞서 조선소 2위 자리 정찰전에서 한발 앞섰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은 각각 417만CGT와 278만CGT로 4, 5위를 유지했고 STX조선(231만CGT)과 한진중공업(219만CGT)은 6, 7위를 이어갔다.

이처럼 한국 7개사의 수주 잔량은 총 3천840만CGT로 5월말까지 전세계 총 수주잔량 1억800만CGT 가운데 35%를 차지해 세계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연철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Qualification, Employment Type, Start Date, and Contact Info. Lists various job openings from companies like 한국쓰리엠, 현대제철, and SENSTEC.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